

아는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드는 법

지금까지 아무일도 없었다고 영원히 아는 남자만 지낼 수는 없다. '싱글플러스' (thesingle.co.kr)가 아는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.

■ 남자가 보내는 신호

일단 '뭐해?' 라고 물으면 관심이 있다고 보면 된다. 밥은 먹었나, 끝나고 뭐하나, 요즘 일은 할 만하나 등 여자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궁금해하면 가능성이 있다. 남자들이 이런 신호를 보낼 때는 여자가 좀 당겨주면 사이가 발전될 수 있다. 아는 사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남자도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. 남자도 생각 많고 여리고 겁쟁이도 많다. 차일까봐 감정 접을 때도 빈번하다.

그런데 늦은 밤 술 마시고 2차 같 때쯤 '뭐해?' 라고 연락하는 남자는 술 먹고 용기를 낸 것일 수도 있지만, 스킨십을 하고 싶어 연락했을 수도 있다. 술김에 그냥 생각 난 경우일 수도 있으니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응하는 게 낫다.

■ 함께 보내는 시간 늘리기

대부분의 남자는 처음 만났을 때 외모 때문이든, 목소리 때문이든, 직업 때문이든 매력 없다고 포지션이 되면 여자로 안 느낀다. 아무리 연락을 해봤자 귀찮아한다. 여자 입장에서 남자의 호감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'밥 먹자' 고 제안을 해보는 거다. 좋아하면 가능성이 있고, 바



쁘다고 하고 다시 얘기가 없으면 전혀 마음이 없는 거다.

이럴 경우에 서서히 남자와 같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. 남자가 운동을 좋아하면 '저도 운동 좋아하는데 같이 해요' 문자 보낼 게 아니라, 그가 다니는 헬스장에 등록하는 거다.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따뜻하게 케어해줄 수 있는 여자에게 결국 마음이 움직인다. 배려심, 행동, 말투 등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서서히 그 남자의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한다.

■ 관계 깨질까 걱정된다면

호감을 표현할 때는 그 감정을 책임질 용기도 필요하다. 남자가 괜찮아 보여 다가갈 때는 뒷 감당을 각오해야 한다. 만약 잘 안 되었을 경우, 굳이 아는 사이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? 아는 사이라는 건, 심하게 말하면 결혼식, 장례식 때나 한번 볼 사이다.

평소에 아무 연락도 안 하는데 그 사이가 깨질까봐 다가가지 못한다는 건 바보 같다. 아는 남녀 관계는 한 명이 결혼하면 그걸로 거의 끝이다. 그러나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잡아야 한다. 일단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.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.

사진=shutterstock

Susan 반영구 화장 Microblading

인생의 당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자!

3D 자연눈썹 / 아이라인

남자눈썹

* 무통시술로 헤드립니다 *



562.376.0180

11819 South St, Cerritos CA 90703

용접 및 하우스 리모델링 모든 것 해결해 드립니다



철대문 제작/설치 및 펜스 설치
녹슬어 떨어지거나 망가진 곳
플러밍, 페인트, 타일, 에어컨



LED Light, Slipfence
식당, 하우스, 화장실 리모델링
Metal Door, 콘크리트, 방범창살, 핸드레일

SK 핸디맨 펜스/플러밍/리모델링

909.969.3669



웰컴치과그룹

B
Best Price

B
Best Quality

B
Best Service

만을 고집하는 웰컴치과

가격이면 가격! 품질이면 품질!

실력이면 실력! 모두 자신있습니다.

믿고 맡길 수 있는 웰컴치과는 친절합니다.

명문대 출신 실력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히 치료해 드립니다.

Best

시니어들을 위한
다양한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

PPO 및 각종보험 환영



- 아주영(JustinLee) DDS
- 로마린다 치대 졸업



웰컴치과그룹

애나하임

한인타운

714.552.5373

213.381.2827

1201 N. Euclid St.
Anaheim, CA 92801

2500 W. 8th St. #106
LA, CA 90057